

멀리서 본 한국의 정치

간혹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다.

이회창이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었다면 지금보다 낫지 않았겠냐고.

휴... 물론 명박이만 하겠냐만

한나라당 의원들이나 소위 보수층이라는 자들이 하는 꼴을 보면

그래봐야 달라질 게 없어보인다.

이건 능력문제가 아니다.

인간성 문제다.

JJung (kilf9000)

나는 '시정연설'이라고 해서 그동안의 국가 운영이 잘못되어 국가 운영을 시정할 것을 국민들에게 약속하는 그런 연설을 하는 줄 알았다. 그런데 그런 시정은 온데 간데 없고 꼭 시정잡배가 연설하는 소리같던 시정연설이라는 것을 보고 들으니 이명박이가 뭔가 중요한 나사가 하나 빠진 것 같은 인간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았다. 마치 정비가 덜 된 자동차를 몰고 가족 단체로 장거리 여행을 떠나는 전형적인 '케세라세라'형 운전자 같아 보인다.

이런 사고 방식은 반드시 시정을 하고 넘어가야 하는데도 돈키호테같은 이명박 운전수는 차의 결함을 고칠 생각을 하지 않고 아무리 똥차 고물차라고 해도 '이 차는 완벽한 차다' 라는 주문을 외우면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서 목적지까지 무사히 도착할 수 있다는 망상으로 운전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객관적으로 볼 때, 가족은 물론이고 제 삼자가 볼 때 얼마나 위태 위태한 느낌을 받겠는가.

리창훈 (changhoonlee)

저는 언제부터인가 기자가 쓴 기사 보다는 그 기사에 반응으로 쓰인 일반인들의 의견이 더 흥미로워 지게 됐다. 그 이유는 그 의견들의 다양성과 우리 민족의 토지적인 막가는 표현들이 재미 있고 기자들의 보통 가시적인 글보다 더 진지해 보이기 때문이다. 호주 언론에서 볼 수 있는 일반인의 글보다 약간 덜 논리 적이긴 하지만 더 순수한 감정이 묻어 있어 저에게는 가깝게 다가 온다. 위의 의견들은 제가 보기에 재미 있고 나름 대로 진지한 글들이다.

현재 한국의 관심거리는 대통령을 제대로 뽑았는지에 대한 의문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다. 이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진보층 뿐만이 아니고 보수적 경향을 가진 사람들도 가지고 있는 의문이라고 하겠다. 저의 생각은 이리하다.

이명박 대통령은 합법적으로 뽑힌 한국 대통령이다. 그가 경제 운영을 못하고 납득 안가는 발언을 자주 한다 하여 그를 나라의 대통령으로 인정 하지 않는 것은 옳지 않다. 이것은 노무현 대통령 때도 그랬고 이명박 대통령 때도 마찬가지다. 다만 우리가 중요시 하여야 하는 것은 그는 법치주의 나라의 대통령이라는 것이다. 그가 할 수 있는 행동에는 한계가 있

고 견제하는 세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 국민이 정치적으로 해야 할 일은 나라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줄 “만능” 대통령을 찾는 것 보다는 누가 대통령이던 나라의 기본적인 틀이 변치 않는 나라 운영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며 그 구축 사업은 누가 대통령 이냐 보다 더 절실히 필요하며 중요한 것이다. 이명박 후보를 대통령으로 뽑은 지난 대선거 때의 한국 국민의 정서는 어땠나? 만능 대통령을 찾지 않았나? 한국 국민은 아직 시스템 보다 사람에게 더 기대는 습성이 있다. 많 좋은 습성이라 본다.

한국에서는 제왕제도의 나라 운영은 끝났다. 솔직히 그 어느 때도 있었는지 의문이 간다. 박정희, 전두환, 노태후 모두 군부 독재 정치였다. 그러나 제가 아는 바로는 그들은 자신들이 모든 지식을 직접 소유 하고 있다 생각 하지 않았다. 그들은 나라 운영에 필요한 경제 지식을 가장 훌륭한 전문가에게 얻어 응용 했다고 본다. 독재 정치로서 많은 사람들을 괴롭힌 그들은 응호 하자고 하는 것은 아니나 우리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가장 불안한 점은 그가 전문가에게 의뢰 없이 많은 국정을 진행 하지 않나 하는 점이지 아닌가 생각 한다.

한 개인이 한 나라의 경제를 살리는 것을 기대 하는 것은 비 현실 적이다. 박정희 대통령 때 한국 경제가 살아 난 것은 독재 정치 때문이 아니라 그가 훌륭한 인재들에게 국정을 맡겼기 때문이다. 그 당시 독재 정권은 필리핀 마코스 등 세계에 여러 군데 있었으나 지금 잘사는 나라는 하나도 없다. 만약 박정희 대통령이 지금 살아 있어 정치에 관심이 있다면 그는 안정한 한국 사회에 독재 정권을 추구 하지 않았으리라 나는 믿는다. 왜냐면 그는 사적인 욕심인 없었던 사람이라고 알기에. 그러니까 한 사람 한 당에게 힘을 모조리 실어주는 우리 민족의 현 정서는 이제 이 시대에서 접었으면 한다.

마지막으로 법치국가에서 권력자들을 견제 하는 세력은 언론, 국회 그리고 사법부이다. 한국 정치에서 가장 급한 일은 이 세가지 세력을 강화 시키는 일이다. 강화 시키되 이 견제 세력들이 막 나가는 것을 국민이 용납 하면 안 된다. 대다수 야당이라고 툭 하면 국회를 마비 시키는 그 어느 당 그들이 계속 그리 행동 한다면 그들을 잠시라도 그 자리에서 끌어 내려야 한다. 계속 대다수 당으로 뽑아 힘을 모아주면 국회 내에서 건전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맥을 끈는 것이다. 언론이 외곡 하는 것을 알면서 계속 시청하는 것은 그 언론이 언제 가는 나와 나의 가족을 해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 계속 응호 하는 어리석은 짓이다. 한국이 잘사는 나라가 되려면 국민은 견제세력들에게 힘을 실어 주되 그 들이 무능하거나 기능을 못 할 때 용서 하지 말고 매섭게 다루어야 한다. 그런 시대가 오기를 바란다.

권순재 변호사